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위원
jounhopark@kiep.go.kr

염동호 한국메니페스토연구원 이사장
yeomdongho@gmail.com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윤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chyun@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경제질서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추세,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 및 신고립주의정책에 근거를 둔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브렉시트(Brexit)에 따라 촉발된 유럽연합(EU)체제의 결속력 이완,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및 저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제상황 악화,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조치 지속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중동에서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시험과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미국 대 중국·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정부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유라시아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함.
 - 특히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현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국정과제로 채택함과 동시에,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음.
 -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해온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EAEU와의 FTA를 체결하고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확대, 유라시아 신시장 개척, 교통 및 물류 루트의 다양화,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및 다변화, 미래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이고, 새로운 북방경제 성장모델 창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한국정부는 EAEU와 FTA 또는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ssociation)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상호 협상과정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EAEU 간 FTA 체결 협상에 대비하여 양측간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추진 전략과 과제, 산업협력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새로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정책 방향 수립, EAEU 회원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관계 구축,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보유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EAEU 회원국의 경제와 산업구조

● 아르메니아

- 아르메니아 경제는 투자와 송금액 등의 경로를 통해 러시아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다른 EAEU 회원국들과의 수출입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편임.
- 아르메니아는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으며, 농업이 주요한 산업부문이다. 그 이외에 섬유산업, 도소매와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존재하고 있음.
-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아르메니아의 노동시장이 노동자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실업률이 초등교육을 받은 인구보다 높은 편임.
-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국외 이주노동에 종사하며, 아르메니아 경제에서 송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원자재와 관련된 상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기가 둔화되면서 섬유 및 의류와 같은 제조업 상품의 비중이 증가함.

● 벨라루스

- 벨라루스 경제는 무역, 투자, 보조금(에너지가격, 직접보조금) 등의 경로를 통해 러시아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벨라루스에서는 기계제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이고, ICT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도 발전하고 있음.
- 수출의 경우 가공된 원자재, 승객용 자동차, 반내구 및 비내구 소비재의 비중이 소폭 상승했으며,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의 비중이 확대됨.

- 수입의 경우 비슷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가정용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의 비중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EAEU 회원국들 중 비교적 독립적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가고 있음.
- 2014년 말 국제유가 폭락의 여파로 카자흐스탄은 2015년부터 저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아직까지 카자흐스탄의 거시경제 기초는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카자흐스탄에서는 의외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큰 반면, 농업부문의 산업생산 비중은 작게 나타나고 있음.
- 그동안 원료형태로 수출하던 원자재를 최근 가공하여 수출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최종재의 비중은 작은 편임.
- 수입구조에서 1차 상품, 중간재, 최종재의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키르기스공화국

- 키르기스공화국은 EAEU 회원국들과 비교적 다변화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무역, 투자, 송금액 등의 경로를 통해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음.
- 키르기스공화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다른 EAEU 회원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키르기스공화국은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농업과 광업이 주요 산업임.
- 특히 쿰토르금광의 생산량 증대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섬유업과 식품가공업과 같은 경공업이 존재함.
- 수출구조에서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수입구조에서 에너지 자원과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최종재의 비중은 반내구 및 비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늘어났음.

● 러시아

- 러시아는 EAEU 회원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며, 역내 국가들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산업발전단계로 본다면, 러시아는 중기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음.
-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무역 대상지역별 비중이 변화되었는데, EU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동

북아국가들의 비중이 증가함.

- 러시아의 수출구조는 전반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1차 상품 비중이 약간 감소한 반면,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중은 소폭 증가함.
- 수입구조에서 1차 상품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중간재 비중은 부품부분품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소비재 비중은 승객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감소함.

표 1. EAEU 회원국의 산업구조 비교·분석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
EAEU 경제 연관성	러시아 경제와의 연관성	-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이 더디게 나타남.	- 기계제조,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나타남.	-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유가로 인해 경기둔화를 겪고 있어 산업다각화가 필요함.	- 농업과 광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를 가지며, 비교적 경제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주로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유가로 인해 경기둔화를 겪고 있어 산업다각화가 필요함.
	러시아를 제외한 EAEU 역내무역 비중	- 무역, 투자, 송금액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됨.	- 무역, 투자, 경제보조금(에너지가격, 직접보조금, etc.) 등의 경로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가짐.	- 무역, 투자 부문에서 연관되어 있으나, 타 EAEU 회원국에 비해 연관성이 작음.	- 러시아와 무역, 투자, 송금액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됨.	-
산업구조	러시아경제 1% 성장시 ¹⁾	- 경제 0.63% 성장	- 경제 0.35% 성장	- 경제 0.09% 성장	- 경제 0.59% 성장	-
	수출, 수입에서 각각 0.2%, 0.7%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수출, 수입에서 각각 1.8%, 0.2%의 비중으로 연관성이 낮음.	- 수출, 수입에서 각각 1.1%, 2.1% 차지함.	- 나머지 EAEU 회원국은 수출, 수입에서 각각 10.7%, 26.8% 차지함.	- 나머지 EAEU 회원국은 수출, 수입에서 각각 8.9%, 7.5% 차지함.	- 나머지 EAEU 회원국은 수출, 수입에서 각각 8.9%, 7.5% 차지함.
	산업발전 수준	- 산업발전 초기	- 산업발전 초기	- 산업발전 초기	- 산업발전 초기	- 산업발전 초기
주요 산업	농업 중심의 1차 산업 기반이 발달	- 기계제조 중심의 2차 산업이 발달	- 에너지 중심의 1차 산업 기반 발달	- 농업 중심의 1차 산업 기반 구축	- 에너지 중심의 1차 산업 기반 발달	- 일부 첨단산업도 발전
	섬유산업, 도소매와 같은 저부가가치의 2차, 3차 산업기반 존재	- ICT와 같은 고차원 산업이 발전 시작	- 금광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 발전	- 금광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 발전	- 금광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 발전	- 금광업을 중심으로 2차 산업 발전
(노동 생산력)	- 농업 종사자의 생산성 낮은 편	-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농업 종사자의 생산성 낮은 편	- 농업 종사자의 생산성 낮은 편	- 농업 종사자의 생산성 낮은 편	- 농업 종사자의 생산성 낮은 편

주: 1)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키르기스공화국과 러시아의 노동생산성을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공란으로 처리했음.
 자료: 저자 작성.

1) Y. D. Lissovolik, A. S. Kuznetsov and A. R. Berdigulova, *op. cit.*, p. 49.

표 2. EAEU 회원국의 무역구조 비교·분석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
수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재: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 제조품의 비중 증가 - 중간재: 원자재 관련된 상품 비중 감소 - 1차 상품: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재: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의 비중 확대 - 중간재: 가공된 원자재, 승객용 자동차, 반내구 및 비내구 소비자 소품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재: 비중은 여전히 낮음. - 중간재: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비중 소폭 확대 - 1차 상품: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던 상품들을 가공하여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재: 자본재 증가, 소비자 감소 - 중간재: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비중 증가 - 1차 상품: 큰 변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중이 소폭 증가 - 1차 상품 비중이 다소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구조는 2008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재: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 증가 - 중간재: 반제품의 비중이 다소 증가 - 1차 상품: 연료 및 윤활유를 중심으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음. - 중간재와 최종재가 각각 40% 정도의 비중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재: 반내구 및 비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 - 중간재: 반제품을 중심으로 증가 - 1차 상품: 에너지 자원과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음. - 최종재: 승객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감소 - 중간재: 부품부분품을 중심으로 증가 - 1차 상품: 미미하게 증가

주: 1) 그림에서 맨 아래영역은 1차상품, 중간영역은 중간재, 맨 위영역은 최종재 비중을 나타냄

2) 키르기스공화국의 경우 2014년 데이터 부재로 해당 그림에서는 생략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2)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① 아르메니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주도산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아르메니아의 '수출주도산업정책'에서는 수출잠재력 제고와 다각화를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중점목표로 제시됨.
- 아르메니아 정부는 전통 수출산업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안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클러스터 및 인프라 발전을 강조함.
- 2017년 6월 채택된 '정부 프로그램 2017~22'에서 아르메니아 정부는 수출주도 성장을 위해 EAEU 및 EU와의 특혜체제(preferential regime)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EAEU 틀 내에서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를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아르메니아 정부는 2018~22년 주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메이드 인 아르메니아(Made in Armenia)' 홍보·유치 행사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전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 제도적인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3. 아르메니아 '수출주도산업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수출잠재력 제고와 다각화를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중장기 중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상품 다변화: 기존 주요 수출산업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의 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 2020년까지 GDP 대비 수출 비중 19%(2010년 11%) 달성(총수출액 28억~33억 달러)/금속·광물 외 수출규모를 13억~15억 달러(2010년 3.8억 달러) 달성 -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과 협력 강화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역량 강화 - 새로운 수출 유망산업 육성 - 국내시장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 초국적기업 유치 - 비즈니스 환경 개선: 규제 개선 및 인프라 현대화 - 비즈니스 지원체계 개선: 인력개발(인력훈련프로그램 지원, 지식·기술 이전 및 공유 지원), R&D 촉진(테크노파크, 산업지대 조성, 산학공동연구 지원, 벤처펀드 설립 등)
주요 수출산업 (3대 수출품: 금속, 다이아몬드,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광업: 환경안전 이슈에 따라 새로운 안전기술 도입 필요 △ 금속가공: 환경안전 이슈에 따라 새로운 안전기술 도입 필요 △ 식품생산: 주로 주류(와인, 코냑) 수출, '캔' 상품, 미네랄워터, 주스 등/글로벌 식품관리 기준 도입, 마케팅 역량 제고, 물류 루트 개발 수요 높음. △ 귀금속·보석 제조: 주로 다이아몬드 세공 △ 기계·기기 제조: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신기술 도입 위한 전문인력 훈련 및 유치 수요 높음. 군산복합단지 개발, R&D 활성화 계획 △ 화학산업: 제약/초국적기업 유치, 품질인증제도 도입 필요 △ 경공업: 섬유, 제봉/해외시장 정보 필요, 마케팅 역량 제고, 직업훈련 수요 높음. △ 건축자재 생산: 돌, 비금속광물/높은 물류비가 문제점. 시장접근성 제고 및 수출역량 강화 필요
수출산업 촉진을 위한 연계산업	△ 정보통신기술(ICT), △관광, △보건, △교육, △농업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프스타트(Jumpstart)전략 추진: 전통적인 수출산업 및 연계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산업발전 - '자원기반(resource-based) 수출 → 숙련도 기반(skill-based) 수출 → 지식기반(knowledge-based) 수출' * 자원기반 수출품: 식품생산(브랜디, 캔, 미네랄워터, 주스, 과일, 채소 등), (비)금속광물 및 가공제품, 관광 * 숙련도기반 수출품: 다이아몬드 세공, 귀금속 제조, 기계 제조, 제약품, 경공업(면직), 보건 서비스, 요양시설, 의학기기 등 * 지식기반 수출품: 정밀기계(엔지니어링),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등

자료: "Strategy of Export-Led Industrial Policy of Republic of Armenia," pp. 3-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② 키르키즈공화국

● 키르키즈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경제·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함.

- 이 가운데 2013년 채택된 '국가지속발전전략 201~17'(이하 '국가지속발전전략')과 '수출발전전략 2013~17'(이하 '수출발전전략')은 정책적 수요(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대응책임.

- 국가지속발전전략과 수출발전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 방향은 중점육성부문 상품·서비스의 본원 경쟁력과 수출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있음.
- ‘국가지속발전전략’에 따르면, 키르키즈 산업정책의 주요 목표는 첫째, 중점육성부문에 초점을 둔 투자환경 개선, 둘째, 에너지 자립도 강화 및 전력수출국으로서 입지 강화, 셋째, 수력발전 활성화를 통한 기업활동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임.
- 또한 ‘국가지속발전전략’은 에너지(수력발전), 광업, 농업, 교통, 관광, 금융 등을 중점육성부문으로 제시하고 있음.
- 키르키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2017년 8월 출범한 키르키즈 신내각의 국가프로그램 ‘40대 개혁·발전과제’(이하 ‘40대 과제’)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전망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집약적 부문의 수출잠재력 제고’, ‘지역경제 발전’ 등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키르키즈 정부는 산업정책 추진의 주요 목표와 과제로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특히 강조함.

표 4. 키르키즈공화국 ‘국가지속발전전략 2013~17’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육성부문(에너지, 광업, 관광, 농업, 교통, 금융, 친환경 친기술 기반 비즈니스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환경 개선 - 에너지자립도 강화 및 전력수출국으로서 입지 강화 - 수력발전소 설립을 통한 저렴한 전력 생산 확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중점육성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에너지안보 강화 및 수출잠재력 제고 → 전력발전산업의 수익성 강화; 역내 에너지 시장에서 키르키즈의 비교우위 개발 △ 광업: 금광 및 석탄, 비철금속 개발 등 광업분야의 생산 다각화 및 투자환경 개선; 새로운 천연자원 개발 및 최신 광업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 농업: 식품안보 강화;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국 입지 회복 *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핵심 과제 → 관개용수 및 식수 처리 시스템 정비 긴급 △ 교통: 내륙국가라는 지리적 한계 극복 및 통과국으로서 입지 강화를 위한 교통(철도 건설, 북·남 도로 연결, 도로포장 등) 및 통신(디지털 TV 전환,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발전 △ 관광: 역내 관광 및 레크레이션 중심지로 발전 △ 금융: 금융서비스 시스템의 경쟁력 제고, 국민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자료: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Р на период 2013-17 год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8)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③ 벨라루스

● 최근 벨라루스 정부는 혁신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를 중점목표로 하는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벨라루스 정부는 2012년 7월 ‘산업발전프로그램 2020’을 채택했는데, ‘신산업정책’은 ‘산업구조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지표 및 제도적 인프라 개선, 국제협력 강화, 유망 신시장 발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임.
- 특히 벨라루스 정부는 산업발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산업생산 및 수출시장 다각화, 첨단산업 발전 등을 긴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혁신산업 발전과 생산성 제고, 수출잠재력 극대화를

- 목표로 전통산업 및 연료·에너지 산업 고도화, 첨단산업 발전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또한 2016년 12월 채택된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2016~20'에서도 혁신발전과 경제·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 중점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혁신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 확대, 수출역량 제고, 생산성 높은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과제로 강조됨.

표 5. 벨라루스 '산업발전프로그램 2020'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 경쟁력 있는 혁신산업 발전; 노동생산성 제고; 수출잠재력 실현
우선과제	- 기술집약 첨단제품(바이오·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공학, 정제화학제품, ICT, 레이저 광학기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유전공학, 신소재 등) 생산기반 조성 - 전통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잠재력 제고 - 자원 및 에너지집약도 감소; 원재료 가공기술 심화 - R&D 활성화 및 투자 촉진 - 친환경기술 도입, 대체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등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
추진단계	- (2011~15) △첨단산업 육성: 정밀엔지니어링, 초소형 전자공학, ICT, 의료기기, LED 기술 등; 바이오기술 발전기반 조성; 기존 미생물학 및 제약 분야 생산력 제고 △심층가공기업 육성: 목재, 농산물, 철강, 실비나이트 등 원재료 가공 - (2016~20) △전통분야(기계제작, 화학, 비금속광물 생산 등) 및 지식집약 첨단 산업 분야의 균형 발전 △기술집약 에너지 및 자원 절약기술 도입 △산업 주요 분야의 혁신활동 활성화 등
산업 범주	△ 전통 수출지향산업: 농기계 등 기계 생산, 야금제품 생산, 고무 및 플라스틱 생산, 직물 및 의류 생산, 식품생산 등 △ 연료·에너지 산업: 고효율 기술 도입을 통한 에너지생산성 제고, 에너지 구조 다변화 추진(원자력, 대체 에너지 개발) △ 첨단산업: 나노, 바이오기술, 광학, 전자 기술 기반 산업발전 → 지식기반 상품 생산 확대; 전통산업부문에 첨단기술 도입
산업 범주별 추진과제	△ 전통산업 현대화: 기술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설비 현대화 추진(자원집약도 감소, 상품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선); 국내 제조업(기계, 비금속 생산) 시장경쟁력 제고;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 연료·에너지 산업 고도화: 에너지구조 다변화; 에너지효율기술 도입; 원자력발전소 건설,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 △ 첨단산업: 지식, 기술기반 첨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과학기술 잠재력 극대화(전자기술, 나노포토닉스, 최신 전자장비, 나노소재 등 개발·생산 역량 제고)
산업발전 지원과제	△ 중소기업 육성 △ 테크노파크 등 혁신인프라 개발 * JSC 'Chinese corporation of engineering SAMS'와 공동으로 중국-벨라루스 산업단지 조성 계획 △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친환경 산업생산 확대

자료: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8)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④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 촉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2014년 8월 채택된 국가프로그램 '산업·혁신발전 2015~19'(이하 '산업혁신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어 있음.
 - '산업혁신 프로그램'은 노동생산성과 수출잠재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제조업 발전 가속화, 둘째,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 효율성 및 부가가치 제고, 셋째, 비원자재 상품시장 확대, 넷째, 노동생산성 증대, 다섯째,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의 기술력 제고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 산업발전기반 마련, 여섯째, 제조 중소기업 및 대기업 활성화 등임.

-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은 국내외 시장성과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현재의 발전수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데, 야금(metallurgy),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등 6개 범주의 14개 우선 육성부문이 제시됨.
- 상술한 제조업 발전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 에너지, 교통·물류, 산업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역량 강화, 혁신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업혁신 프로그램’에서는 성장률·투자 둔화, 원자재가격·운송비용 변화 등 거시경제 리스크와 역내 정세 변화, 유라시아 경제통합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법적·제도적 지원 미비와 같은 규제적 리스크 등이 산업발전 실현의 핵심 변수로 지적되고 있음.

표 6. 카자흐스탄 ‘산업혁신 프로그램’의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과 혁신부문

구분	분야		세부 부문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	1	야금	①	철금속
			②	비철금속
	2	화학	③	농화학
			④	화학제품
	3	석유화학	⑤	석유·가스정제
			⑥	석유·가스화학
	4	기계	⑦	자동차 및 부품
			⑧	전자기계 및 부품
			⑨	농기계
			⑩	철도기계
			⑪	광업기계
			⑫	석유·가스 생산·정제기계
	5	건축자재	⑬	건축자재
	6	식료품	⑭	식료품
혁신 부문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①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②	항공우주·나노 기술
			③	로보틱스·유전공학
			④	미래 에너지 연구

자료: 박정호 외(2016), p. 90.

⑤ 러시아

● 러시아정부는 2014년을 기점으로 서방의 경제제재, 저유가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화, 즉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최우선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14년 4월 러시아정부가 개정하여 발표한 국가프로그램 ‘산업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러시아정부가 2014년 12월 산업정책법(2015년 7월 발효)을 채택하여 수입대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정책의 법적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임.
- ‘산업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에서는 자력발전(self-development)과 혁신산업 발전

- 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첨단제품 생산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촉진, 전통산업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민간부문 재원 및 기술역량 강화 등이 중점과제로 제시됨.
- 또한 8개 하부 프로그램(운송·기계, 식품가공, 경공업, 철·금속 가공, 첨단산업 등)이 주요 육성산업으로 제시됨과 동시에, 산업설비 현대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R&D 활성화 등이 지원과제로 강조되었음.

표 7. 국가 프로그램 '산업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고 안정적이며 구조적으로 균형 있는 산업발전 -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자력발전(self-development) - 혁신제품시장 창출을 위한 선진 산업기술 발전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제품 생산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촉진 - 전통산업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 민간부문 재원 및 기술역량 강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최신 생산기술을 갖춘 민간기업 육성 - 고부가가치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 환경 및 구조 개선 - 최신 혁신제품 생산 확대 - 수입대체화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상품, 설비, 기술의 수입의존도 감소 - 선진기술, 첨단설비 활용을 통한 생산효율성, 에너지효율성, 노동생산성 증대 -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 창출 - 혁신산업의 현지화 심화 	
주요 하부 프로그램	1. 운송 및 기계 산업 발전	(중점과제) 생산의 현지화 심화 및 수출잠재력 제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품, 기술 개발을 위한 R&D 프로젝트 추진 및 관련 인프라 개발; 인력공급체계 개선 (기대효과) 국내시장 및 총 산업생산에서 러시아산 제품의 비중 확대; 자동차, 운송엔지니어링, 농기계, 건축기계 식품가공 부문 등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 증대; 산업부문 노동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2020년까지 최신 철도차량에 대한 국내수요 100% 충족 및 철도설비 부족 완화; 도로교통 서비스 개선 등
	2. 생산수단 생산의 발전	(중점과제) 첨단부문 수입대체화 생산설비 구축을 통한 기술자립도 제고; 국내시장에서 러시아산 제품 수요 확대; 기술상용화를 통한 새로운 혁신 생산수단의 수입대체화 촉진 등 (기대효과) 신기술(로보틱스, 디지털생산, 적층기술 등) 생산 및 관련 기업 활동 촉진; 러시아 산업의 혁신 리노베이션을 통한 수입대체화 가속화, 기계생산 및 방위산업복합체(항공기, 로켓, 우주선, 선박, 발전기 등) 부문의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 감소; 러시아 엔지니어링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발전엔지니어링, 전기케이블, 공작기계, 산업로봇, 적층생산 등 부문의 수입비중 감소
	3. 경공업 및 섬유산업, 수공업품, 어린이용품 산업 발전	(중점과제) 경공업의 국제분업체계로의 편입을 고려한 발전 촉진; 경공업 부문(합성 자재, 무두질제(봉제, 신발, 가구, 자동차 산업을 위한 가죽) 기술체인 구축; 의류 및 신발 생산의 부분 현지화 촉진 등
	4. 전통소재 및 신소재 생산 확대	(중점과제) 러시아산 아금제품 소비 확대 및 경쟁력있는 희토류산업 발전; 현대식 복합재료 발전; 임업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임업제품 생산 확대; 화학부문 생산역량 제고 및 현대화 등 (기대효과) 철금속 및 비철금속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산업폐기물 감소를 위한 기술 도입 및 관련 산업 현대화; 희토류 수입의존도 감소 등
	5. 민간부문 첨단제조업 지원 및 투자프로젝트 추진	(중점과제) 민간부문 첨단산업(완제품 및 부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현지화 촉진; '러시아기술발전펀드'를 통한 민간부문 투자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역량 제고 등
	6. 민간부문 R&D 활성화	(중점과제) 민간부문에 경쟁력있는 국내기술 도입; R&D 활성화; 과학기술 인프라 발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 경쟁력있는 수입대체화 제품 생산 및 기술역량 제고;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생산설비 현대화 등
	7. 산업인프라 및 지원메커니즘 발전	(중점과제) 산업잠재력 제고를 위한 현대식 산업인프라 발전; 산업지대 및 클러스터 조성; 산업지대 및 클러스터에 선진기술과 국제적 노하우 도입·적용; 산업클러스터 차원의 산업협력 촉진; 러시아산 제품의 품질 개선 및 수입대체화 촉진 등
	8. 기술규제 메커니즘 개선	(중점과제) 기술규제시스템 및 국가표준시스템 개선 등

자료: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новой редак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повышение её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26)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EAEU 차원의 산업정책

● 2014년 5월 체결된 EAEU 조약은 제29항 '산업정책과 협력'에서 EAEU 차원의 산업정책 수행 원칙과 목적, 방안 등을 제시함.

- 이를 근거로 하여 EEC는 2015년 9월 'EAEU 차원의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며, 중기(5년) 관점에서 EAEU 역내 산업협력의 방향, 원칙, 목적, 메커니즘 등을 제시해주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최근 주요 선진 경제권에서 해외 생산공장의 국내 회귀, 첨단·혁신 산업 발전 촉진, 대체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산업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표 8. 'EAEU 차원의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산업협력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간 효율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잠재력 실현 - 지속적인 산업발전 역량 강화 - 회원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활동 확대
산업협력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공정 자동화, 디지털 경제 전환
산업협력 방향과 세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의 산업생산(산출량) 증가 △ 산업협력 및 하도급(subcontracting)을 통한 유라시아 네트워크(Eurasian Network) 창출: 각국 제조업체(중소기업 포함) 간 생산 체인 구축 △ 산업생산 투자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금융기구 차관 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펀드 등 추진 수단 마련 △ 공동 '혁신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술 상용화 추진, 혁신기업 설립, 혁신상품(서비스 포함) 생산 △ 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유라시아개발은행(EDB)이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설비 및 자금 지원(단기: 기술 설비 임대, 장기: 각국 기업 간 협력 촉진 지원) - EAEU 시장 내 회원국의 생산품 비중 확대 및 현지화 촉진 △ EAEU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조치 수행: 역외 모조품 대응; 회원국과 제3국 간 FTA 체결의 적실성 검토 시 해당 가이드라인 및 각국 산업발전프로그램을 토대로 EEC 산업정책부 및 회원국 담당자와 논의 필요 △ 새로운 가치사슬(value-chains) 구축: 최우선 공동 프로젝트 고안 및 추진 - 새롭고 경쟁력 있는 수출지향 제조품 개발 △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메커니즘 개발: 회원국 제조업체가 공동 생산한 제품의 수출 촉진(공동 무역관, 설비 및 기술지원 센터 설립; 공동 마케팅 추진; 공동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추진 등) - 생산설비 현대화(기술 업그레이드) 및 혁신 산업 발전 △ 산업·혁신 인프라 설비 개발: 산업인프라 설비 관련 국제 및 역내 기준(standard) 도입,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공동 디지털 공간(digital space) 창출 △ 기술 플랫폼: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Eurasian Technology Platforms)(과학기술, 혁신, 제조업 분야 협력 메커니즘) 구축 △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자동화, 로봇자동화 등 첨단 기술 솔루션 개발을 위한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및 '경쟁력 센터' 설립 → 회원국 기계공정 분야 생산 과정에 혁신기술솔루션 도입 촉진 △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권(기술 상용화 관련 개인 및 법인의 권리 포함) 이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지식 공유 및 공동 R&D 활성화 등 - 역내 국제산업협력 활성화 △ 산업, 연구, 기술 분야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정부의 비즈니스 단체 등과 협력 강화 △ 회원국의 지속적인 산업발전 잠재력 제고, 경제 다변화, 혁신발전, 글로벌 생산체인으로의 편입 가속화 등을 위해 주요 경제협력국과 협력 강화

자료: Евразийск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2015a), pp. 7-73 바탕으로 저자 작성.

- EAEU 차원의 산업협력 방향 및 세부 과제는 첫째, 회원국의 산업생산 증가, 둘째, 역내 회원국의 생산품 비중 확대 및 현지화 촉진, 셋째,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조품 개발, 넷째, 생산설비 현대화와 혁신산업 발전, 다섯째, 국제산업협력 활성화임.
- 특히 산업혁신프로젝트로 유라시아 기술 플랫폼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유라시아 기술이전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되었음.

4) EAEU 교역구조와 한·EAEU 산업경쟁력

● EAEU 역내 교역구조의 주요 특징

- 교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교역결합도가 강해지고 있음.
- 세계 수출총액 가운데 EAEU의 수출 비중은 2005년 2.77%에서 2016년 2.20%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EAEU 역내 수출은 9.32%에서 11.86%로 증가했음.

표 9. EAEU의 교역구조 변화

		2005	2016
		백만 달러(%)	백만 달러(%)
아르메니아	역내수출액	12.1 (12.90)	392.5 (21.71)
	총수출액	93.7	1807.8
	역내수입액	26.4 (15.60)	1014.5 (31.52)
	총수입액	169.2	3218.5
벨라루스	역내수출액	591.9 (37.05)	11334.6 (48.16)
	총수출액	1597.7	23537.4
	역내수입액	1012.9 (60.66)	15039.7 (54.47)
	총수입액	1669.9	27609.9
카자흐스탄	역내수출액	322.1 (11.57)	3917.4 (10.65)
	총수출액	2784.6	36775.3
	역내수입액	691.0 (39.87)	9666.0 (38.40)
	총수입액	1733.3	25174.8
키르기즈공화국	역내수출액	25.2 (37.49)	297.3 (20.89)
	총수출액	67.2	1423.0
	역내수입액	56.6 (51.14)	1471.6 (38.28)
	총수입액	110.8	3844.5
러시아	역내수출액	1722.0 (7.13)	25460.6 (8.92)
	총수출액	24145.2	285491.1
	역내수입액	1495.5 (6.53)	13567.3 (7.44)
	총수입액	22891.2	182257.2
역내총수출		2673.3 (9.32)	41402.4 (11.86)
EAEU 수출총액		28688.4 (2.77)	349034.5 (2.20)
세계총수출		1034330.4	15862397.8
EAEU역내총수입		3282.5 (12.35)	40759.1 (16.84)
EAEU 총수입		26574.3 (2.51)	242104.8 (1.51)
세계총수입		1060508.0	16062472.8

자료: UNCTAD Stat, DB 자료(검색일: 2017. 10. 1) 바탕으로 산출.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나라는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이며, 러시아 의존도가 약해진 대신에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나라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공화국임.

● 한·EAEU 산업경쟁력 평가

- 가공단계별 경쟁력 수준을 비교해본다면, EAEU 회원국들은 대부분 1차 상품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자본재, 부품, 운송장비제품, 승용차, 산업용 운송장비 등 제조업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군에서 경쟁력이 확인되어 경쟁분야가 서로 상이하다는 특징을 나타냄.
- EAEU 회원국들의 경우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는 1차 상품 가공분야이며, 기술집약제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국의 경우 비내구재를 제외한 소비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 비해, 원자재와 에너지, 식음료품 등의 가공산업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 산업별 경쟁력 측면에서도 EAEU 회원국들과 한국 간의 차이가 분명함.

표 10. EAEU 회원국과 한국의 가공단계별 경쟁력 비교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	한국
TSI)0, RSCA)0	미가공원자재 가공연료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가정용 가공식음료 산업용 가공식음료 가공원자재 산업용 운송장비	가공원자재 미가공원자재 미가공연료	미가공원자재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미가공연료 가공연료 미가공원자재	부품 가공원자재 자본재 운송장비제품 승용차 산업용 운송장비
TSK0, RSCA)0	가정용 가공식음료 가공원자재 산업용 가공식음료 비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자본재	가공원자재 운송장비제품 자본재 가정용 가공식음료 산업용 운송장비 반내구소비재		
TSK0, RSCA)0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미가공연료 비산업용 운송장비 산업용 운송장비 자본재 부품 승용차 운송장비제품 내구소비재	미가공원자재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미가공연료 가공연료 자본재 부품 승용차 운송장비제품 비산업용 운송장비 비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가정용 가공식음료 산업용 운송장비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부품 승용차 운송장비제품 비산업용 운송장비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산업용 미가공식음료 미가공연료 가공연료 부품 승용차 비산업용 운송장비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가정용 미가공식음료 가정용 가공식음료 산업용 가공식음료 운송장비제품 비산업용 운송장비 산업용 운송장비 자본재 부품 승용차 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가공가정용 식음료 미가공원자재 미가공연료 가공연료 미가공가정용 식음료 가공산업용 식음료 미가공산업용 식음료 비산업용 운송장비 반내구소비재
TSI)0, RSCA)0		내구소비재	산업용 가공음식료 가공연료		가공원자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 EAEU 회원국과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	한국
TSI\0, RSCA\0	귀금속 비금속	농산품 건설자재 목재 및 펄프 도기류 화학제품	광공업제품 광물성연료 철강 및 관련 제품	귀금속	광공업 제품 광물성 연료 철강 및 관련 제품 목재 및 펄프 비금속	전기기계 광학정밀기기 수송기계 비금속 철강 및 관련 제품 플라스틱고무
TSI\0, RSCA\0	식음료 광공업 제품 철강 및 관련 제품 건설자재 도기류	광공업 제품 광물성 연료 철강 및 관련 제품 플라스틱 고무 식음료		농산품 건설자재 도기류 섬유제품		
TSI\0, RSCA\0	농산품 섬유제품 광물성연료 의료용품 제약 관련 제품 광학정밀기기 가죽제품 신발·모자류 잡품 플라스틱고무 수송기계 전기기계 기계류 화학제품 목재 및 펄프	비금속 신발·모자류 기계류 가죽제품 광학정밀기기 전기기계 경공업 제약 관련 제품 의료용품	화학제품 가죽제품 신발·모자류 목재 및 펄프 기타 식음료 전기기계 수송기계 섬유제품 플라스틱 고무 잡품 도기류 광학정밀기기 기계류 항공우주 의료용품 건설자재	수송기계 광공업제품 항공우주 가죽제품 식음료 신발·모자류 비금속 플라스틱 고무 광학정밀기기 기계류 목재 및 펄프 전기기계 잡품 화학제품 제약 관련 제품 의료용품 경공업 광물성 연료 철강 및 제품	농산품 화학제품 식음료 도기류 플라스틱 고무 기계류 가죽제품 광학정밀기기 전기기계 잡품 신발·모자류 섬유제품 수송기계 제약 관련 제품 항공우주 건설자재 경공업 의료용품	화학제품 잡품 건설자재 경공업 식음료 광물성연료 도기류 항공우주 광공업제품 가죽제품 목재 및 펄프 신발·모자류 의료용품 농산품
TSI\0, RSCA\0	항공우주	잡품 수송기계 섬유제품	비금속 귀금속 제약 관련 제품 농산품		귀금속	기계류 무기류 제약 관련 제품 섬유제품 귀금속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EAEU 교역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 EAEU 회원국들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임.
- ‘EAEU의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토대가 되는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와 잠재력을 활용하여 유라시아 가치사슬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음.
- 국제수직분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글로벌 가치사슬로 확대해나간다면 수직분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전기·전자기기와 수송기계, 광학정밀기기산업과 부품 및 자본재 분

야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3. 정책 제언

1) EAEU 회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 EAEU 회원국들의 산업정책방향과 주요 특징

- 전통적인 기존 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스마트발전시스템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 등과 같은 생명공학 및 신소재 개발부문에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두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부문이 가장 유망한 성장동력 산업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2) 한·EAEU 산업협력 유망분야

● 신재생에너지

-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 중 하나로서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한국과 EAEU 회원국들 모두에 유망한 산업협력분야임.
- 스마트그리드시스템 구축, 초소형 발전시스템 활용 등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절감 기술 개발도 유망함.

● 기계류와 부품산업

- 기존 산업의 기술 향상과 산업의 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제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협력분야임.
- 자동차부품산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보급률 증가, 역내 및 역외 수출확대 등 현지 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할 경우에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 중 하나임.

● 제약 및 의료 산업

- 한국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EAEU 회원국들의 협력수요가 바로 제약 및 의료 분야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생명공학, 바이오, 나노 기술 등의 분야에서 산업협력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항공 및 우주 산업

- 한국은 로켓, 항공기, 우주선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항공 및 우주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EAEU 회원국들(특히 러시아, 일부 분야에서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은 항공 및 우주 산업 관련 선진국임.
- 양측간에 공동기술개발 및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항공 및 우주 산업협력이 가능할 것임.

● IT 관련 산업

- 전자정부와 IT 실크로드 구축,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이 증진될 수 있을 것임.
- EAEU 역내 시장에 스마트네트워크 구축을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농업

- EAEU 회원국들은 대체로 농업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국가들에 농업은 대표적인 전통산업일뿐만 아니라, 수입대체산업 육성 및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략분야임.
- 한국은 농업기술개발, 농기계 제작, 식품가공업 육성 등에서 산업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품종개발 등과 같은 가공기술 협력과 더불어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의료, 보건

- EAEU 회원국들의 교육, 의료, 보건 수준을 고려한다면, 3대 산업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임.
- 한국은 아르메니아(요양시설,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 카자흐스탄(보건 및 의료 분야), 러시아(원자력 의료, 원격 의료, 바이오 의학세포 기술 분야) 등과 해당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임.

3) 한·EAEU 산업협력 추진전략

● EAEU 전체 차원의 산업정책 기본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함.

- EAEU는 산업협력 방향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간 생산체인(유라시아 네트워크) 및 기술 플랫폼 구축을 표방하고 있음.

- 그러나 4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EAEU 회원국들이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협력만으로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본원적인 한계가 있음.
-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산업 현대화 및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추진,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유라시아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생산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을 고려해야 함.

●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작업을 통해 분야별 산업협력방안을 수립해야 함.**

- EAEU 산업협력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과 장단점은 물론이고, 이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공동제품생산 및 공동시장개척 프로그램을 토대로 산업협력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가공단계별 경쟁력과 산업별 경쟁력을 통해 본다면,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EAEU 차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됨.

●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함.**

-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산업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 한·EAEU 산업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체계화와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양자 민관산업협력위원회를 병행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 EAEU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라시아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과 한국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동반 진출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한국과 EAEU 간 금융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 국책 금융기관(수출입은행)과 EDB 간 금융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 있음.
- ‘한·EAEU 투자자 플랫폼’ 구축, ‘북방경제협력기금’ 조성, EDB에 대한 지분 참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 전략 로드맵을 작성해야 함.

- 이 전략의 기본 방향 및 두 가지 핵심 목표는 EAEU와 GVC 구축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사양산업의 활성화, 국내 및 해외 비교우위에 기초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임.
-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과 동시에, EAEU 및 국내 수요분석과 한·EAEU FTA 효과분석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상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EAEU 산업협력추진단이 진출 산업 및 제품을 선정해야하며, 산업협력 추진에 필수적인 하드웨어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KIEP**